

#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게요”

참사 21일만에 무안공항서 추모식 유족·정부관계자 등 1200여명 참여 곳곳서 희생자 이름 부르며 통곡 유족 대표 “사고원인 명확히 밝혀야”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순간들을 기억할게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20일 만에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식이 엄수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지난 18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합동추모식은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진도 씻김굿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내빈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편지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혼합이 소리와 추모곡이 구슬픈 판소리와 함께 흘러나오자 곳곳에서는 유족들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한 유가족은 눈물을 참지 못하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으며 옆에 있던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다독였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지난 18일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진도 씻김굿 보존회원들이 지진춤 추모 공연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기자

추모식에 정복을 입고 참석한 소방대원들도 침울한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비표를 받지 못한 300여명의 추모객들도 1층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추모식을 지켜보며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화면으로 유가족들이 눈물짓는 모습을 본 한 자원봉사자는 감정이 오롯이 전해져 오는 듯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헌화식에서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1~2층 계단에 남겨진 추모 메시지가 LED로 송출됐다.

눈물을 흘리던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소중한 가족들이 세

상을 떠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 있다”며 “희생자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은 남아있는 우리의 몫이 됐다. 열심히 살아왔던 그분들과 사회 발전을 위해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진상 규명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

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다”고 약속했다.

추모영상 상영과 유가족들의 편지낭독도 이어졌다.

희생자 김영준씨의 딸 김다혜씨는 “참사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살아서 만나길 기도했지만 다음 날 새벽 아빠의 차가운 시신을 마주하게 됐다”며 “하루 아침에 아빠를 보지 못하게 될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가 된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씨는 “아빠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8일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하고 있다. 나건호기자

## “참사 진상 규명·재발 방지...제도·정책 정비”

### 여야,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여야는 지난 18일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은 물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그날, 그 시간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의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겠다. 법과 제도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대표는 “말도 못 할 슬픔과 고통을 겪은 유가족 여러분께 거듭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애써준 관계자 여러분, 자기 일처럼 나서 도움을 주고 아픔을 함께해 준 많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비극적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집단적 고통과 원망, 분노를 불러왔다”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강 시장, ‘1229마음센터 조성’ 정부 지원 요청

### 희생자 유가족 등 자조공간 필요 최 대행 “선제적 나서줘 고맙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1229 마음센터’에서 수시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자는 것이다.

강 시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대표단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등 정부대표단은 앞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한 뒤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를 방문, 합동분향

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 시에서는 강 시장을 비롯해 고흥환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 참배에 이어 ‘1229 마음센터’ 임시 예정지인 전일빌딩 245를 둘러보고, 광주시가 구상 중인 ‘1229 마음센터’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전일빌딩245의 의미와 역할 등을 공감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1229 마음센터’ 조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심리 치유의 첫 출발로 전일빌딩245에 ‘1229 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특별법에 근거해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광주시 계획을 청취한 뒤 “광주시가 (유가족 심리 치유·일상 회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줘 고맙다”고 밝혔다.

## 무안공항 활주로, 4월18일까지 폐쇄 연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객기 운행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재개가 오는 4월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1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

다.

앞서 정부는 무안공항의 활주로 재개를 수차례 연기했다. 당초 이달 1일에서 7일로 연기했고, 다시 14일과 19일 오전 5시까지로 재차 활주로 재개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친구이자 멘토였다”며 “아빠가 자주 말해주셨던 ‘너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내 박현자씨와 딸 김수림씨를 잃은 가장 김성철씨는 “딸이 참사에 휘말리기 전 꿈에 나와 송금을 했다. 딸에게 왜 송금을 했냐고 물으니 ‘외로움 값’이라고 하더라”며 “이제 외로움 값이 뭔지 알게 됐다. 외로움 값은 아내와 딸을 사랑해주고 남겨주신 분들과 함께 봉사하며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추모 영상 상영과 편지 낭독이 끝나자 일부 유가족들은 슬픈 감정을 가라 앉히지 못하고 가슴을 내려치거나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추모 영상을 통해 희생자 사진이 나오자 어머니로 보이는 한 유족은 “아이고 아들이 엄마가 곧 따라갈게”라며 오열했다. 수습당국관계자, 추모객들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거나 숨죽여 흐느꼈다.

추모식은 추모곡 ‘내 영혼 바람되어’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추모식을 마친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공항 활주로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폭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정면 충돌하고 폭발했다.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는 유가족 협의를 전제로 ‘1229 마음센터(가칭)’를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유가족 및 시민의 심리 안정·치유를 위한 자조공간이자 일상회복 지원 공간을 전일빌딩245 4층에 마련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통합서비스 지원 △대시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2단계로 ‘1229 마음센터’를 건립해 종합적 재난 심리지원이 가능한 종합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진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위원장(국민의힘)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을 만나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 마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노병하 기자

배포하고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활주로 외곽담 등의 시설의 복구가 되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한 후 (무안공항) 활주로를 재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